

**담당 :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: 02)560-4448 ㅣ Mobile : 010-7680-310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배포 일시 : 2025년 8월 8일(금) 14:30 ㅣ 보도 일시 : 2025년 8월 8일(금) 14:30**

**‘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’ 2R 오전조 주요선수 코멘트**

**(윤이나, 이수정)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|
| 2 | 기 간 | 2025년 8월 7일(목) ~ 8월 10일(일) |
| 3 | 장 소 |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 [북(OUT) / 서(IN) 코스] |
| 4 | 주 최 |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, 광동제약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586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31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윤이나, 방신실, 박현경, 이동은, 노승희, 고지우, 김민선7, 김민주, 이가영  정윤지, 박혜준, 박보겸, 유현조, 김시현, 송은아, 서지은, 고지원, 성유진  강채연, 지한솔, 박성현, 임진영, 현세린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3라운드] 10시 ~ 16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윤이나 2라운드 중간합계 14언더파 130타(66-64) \*14시 30분 기준 단독 선두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823>

**오늘 경기는 전반적으로 어땠나?**

오늘도 어제처럼 샷과 퍼트 모두 순조롭게 잘 됐다. 샷이 좋아서 버디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었고 퍼트도 잘 돼서 버디를 8개까지 잡았다.

**1,2라운드 모두 노보기플레이인데?**

오늘도 노보기여서 정말 기분 좋다. 대회 끝날 때까지 노보기플레이를 하고 싶지만 꼭 바라면 잘 안 된다. 그래서 매 샷마다 타이밍을 잘 잡고 퍼트도 좋은 리듬을 계속 떠올리면서 한홀 한홀 집중해서 임하겠다.

**버디 8개의 원동력은?**

퍼트가 좋았기 때문이다. 물론 버디 찬스를 많이 만들긴 했지만 중장거리 퍼트가 잘 들어간 덕분이다.

**LPGA에서도 오늘처럼 치면 우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?**

작년 제주삼다수 대회에서 좋은 기운을 받았는데, 올해도 이어가고 있다. 이 흐름을 갖고 미국가면 ‘우승도 금방 나오지 않을까’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했다. 퍼트나 어프로치가 한국과 미국에서 많이 달랐다. 이 점이 내 실수인지 잔디 때문인지 헷갈렸는데, 내 문제이기보다는 잔디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.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퍼트를 할 계획이고, 그러다보면 좋은 결과도 따라올 것이라 생각한다.

**미국에서 적응하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?**

모든 점이 힘들다. 이동이나 먹는 부분, 같이 경기하는 선수들, 그리고 언어와 잔디까지 모든 것이 다르니 첫 해부터 완벽히 적응하는 것은 어렵다고 예상했다.

**남은 이틀, 어떤 부분에 집중할 건가?**

경기 템포를 잃지 않으면 1,2라운드처럼 남은 일정도 잘 풀릴 것 같다. 샷이나 퍼트 모두 리듬과 템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집중하겠다.

**대회 2연패에 대한 생각은?**

미리 앞서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. 2연패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간절한데, 간절히 원하면 꼭 안 되더라. 그래서 어제, 오늘처럼 과정에 집중하는 플레이를 하고싶다.

**◈ 이수정 2라운드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(68-66) \*14시 30분 기준 공동 2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080>

**\* 이수정 아마추어 시절 우승 이력**

- 2018 한국중고골프연맹(KJGA) '제5회 한국C&T배전국중고등학생골프대회' 우승

- 2018 도요타 주니어 골프 월드컵 우승

**오늘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잡으며 6언더파로 마무리했다. 경기 흐름은 어땠는지?**  
초반에는 샷이 어제보다 잘 붙지 않았는데, 중장거리 퍼트가 잘 떨어져 연속 버디로 이어졌다. 큰 위기는 없었다.

**골프는 언제 시작했는지? 동갑내기인 박현경, 임희정 선수와 주니어 시절 경기를 자주 했는지?**  
12살 때 시작했다. 같이 친 적은 많지 않고 한두 번 정도다. 그 선수들이 투어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동기부여가 됐고, 배울 점이 많았다.

**프로 데뷔 후 고전한 이유와 보완할 점은?**  
데뷔 후 드라이버 입스가 오래 지속됐다. 4년 정도 힘들었는데 ‘완벽한 건 없다’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좋아졌다.

**올해 목표는 무엇인지?**  
내년 정규투어 시드권 확보가 가장 큰 목표다. 드림투어에서 우승해 드림투어 상금 순위 상위 자격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**이번 대회에서 상위권인데, 욕심은 없는지?**  
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매 라운드 최선을 다하려 한다. 떨리겠지만 그 상황을 즐기고 싶다.

**보완해야할 것?**

핀 위치가 그린 가장자리에 있을 때 띄워서 공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. 오늘 그 부분을 더 연습할 예정이다.

**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지?**  
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이 좋고 예의가 바른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.